

국토교통부, “민생의 기본, 휴가철 공항 여객맞이 준비 철저”

- 27일 김포공항 중앙통제센터에서 공항별 하계 대비태세 점검 회의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27일 오후 김포공항 중앙통제센터에서 하계 휴가철에 대비한 공항별 준비 사항 점검 회의*를 개최했다.

* (참석) 국토교통부 2차관, 서울지방항공청·부산지방항공청·제주지방항공청·항공교통본부 등 소속 기관장 및 한국공항공사·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등

○ 여름 휴가철(7~8월) 전국 공항의 항공 여객은 ‘19년 대비 약 96.5% 회복하고, 특히 인천공항은 역대 최다실적을 기록했던 ‘19년 수준을 100%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○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편 증편 운항에 따른 공항 혼잡 증가와 태풍·장마 등 풍수해로 인한 항공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기관별 ‘휴가철 풍수해 대응 및 공항안전 점검 계획’을 청취한 후, 안전 운항을 위한 관제·항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장마·태풍에 대비하여 항행시설·공항 주변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.

○ 특히, 공항 일선의 담당자 모두가 국민 안전의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여름철 풍수해·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.

○ 아울러, 김해·제주공항 등과의 화상 연결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지방 공항의 실시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. 기관별 대응 매뉴얼 점검 및 담당자 교육, 비상근무 체계 등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.

○ 마지막으로, 최근 반복되는 북한 풍선으로 인한 항공편 운항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점검 회의 이후 인천공항을 찾아 출국장의 휴가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.

○ 현장을 찾은 백원국 2차관은 “팬데믹 이후 5년 만에 인천공항 국제선이 완전 정상화되는 만큼,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항 전반의 승객맞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○ 아울러, “승객이 여정을 시작하는 출국장·보안 검색대부터 과도한 혼잡 발생과 같은 승객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”도 주문했다.

□ 마지막으로,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공사 현장을 점검했다.

○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“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힘써 줄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 여름철 작업자의 폭염피해 등 사고 예방에도 노력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.

2024. 6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